

문화도시 수원

제 9 호

2022 인문 도시 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EVERYTHING SINGS

좌담

인문도시로 가기 위한 삶의 축제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머물수록

인문도시주간 즐기기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민주주의 향한
9일간의 시민 축제

전문가 칼럼

로봇 휴머노이드가 아닌
인간인 나는
아싸비야가 있는 도시에 살고 싶다

나의도시수원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서장대에 올라
미래를 꿈꿨던 정조대왕의 비전을 느끼다



인문도시로 가기 위한 삶의 축제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 참석자**
- 한문희(인문도시주간 총감독)
 - 김성연(N개의 실행그룹 활동가)
 - 킨메이타(인문도시주간 자문위원)
 - 이명신(인문클럽 시민감독)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특성화 사업인 '인문도시주간' 행사가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111CM, 행궁동 및 관내 문화공간 등에서 펼쳐집니다. '모든 것은 노래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인문적 실천과 실천적 인문을 탐색하는 성과공유회의 자리로 총 37개의 알찬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시민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시민의 다양한 인문적 가치를 담아낼 이번 축제를 기획한 4인방을 만나봤습니다.



단발성 축제가 아닌 '확실히 남다른 게 느껴져' 하는 그런 색다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시 수원을 새롭게 바라보는 축제형 성과공유회 '인문도시주간' 행사가 궁금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문희 저는 문화기획자로서 이번 인문도시주간에서 총감독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크기는 인문도시주간의 방향성과 기본기획을 구성했고, 세부적으로는 감독의 기획 사업들을 실행그룹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제 몫이었죠. 총감독 체제는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소통이나 조율, 조직원들의 일 에 대한 이해도 등 다양한 고민도 함께했습니다.

김성연 저는 수원에서 30년간 살아온 시민 이고 지금은 녹색당, 가치가게, 희망샘도서관 인문기획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인문도시주간 N개의 실행그룹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민기획자로서 민주주의를 축제의 장에서 경험하고 펼쳐내도록 해보자'라는 감독님의 의도를 받아서 여러 시민단체, 시민활동들, 시민들이 함께 모여 행사 기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지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킨메이타 미안마 출신의 수원시민 킨메이타입니다. 이곳에서 25년째 살고 있으며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이자 인문도시주간 행사의 자문위원 역할을 맡고 있어요. 수원 시에는 5만 명 정도 이주민이 살고 있고, 또 거점도시인 수원을 인근 이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도시주간이 지향하는 바가 삶의 다양성이라든가 현재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인정 등의 기본 정신이잖아요. 때문에 이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인문도시주간에 담기 위해 제게 자문위원 역할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를 접할 수 있는 'with 다문화' 실행그룹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명신 저는 수원에서는 30년 조금 넘게 살고 있는 소상공인이자 마술활동가입니다. 인문도시주간에서 인문클럽은 돌봄과 배려, 존중과 확대, 공동체활동, 로컬, 청년 문화, 생태환경 등 주제별로 구성돼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돌봄과 배려' 분야의 시민감독 역할을 맡았어요. 팀을 아우르고, 전체적인 의견조율에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가이드 몫을 해야 했기에 생각보다 무게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연결의 안테나를 세우고, 연결의 더듬이를 펼쳐라

인문도시주간의 주제인 '모든 것은 노래한다'가 인상적입니다. '우리동네'라 부르는 곳을 진정으로 알아가며 시민의 다양한 인문적 가치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기획의도가 돋보이는데요.

한문희 인문도시주간은 삶의 축제를 지향합니다. 관람이나 관광형 또는 누군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관심사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관심사대로 일을 준비하고 그와 같은 관심사가 있는 시민을 만나는 축제죠. 미국의 사상가 엠마 골드만(Emma Goldman)이 "내가 춤출 수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혁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듯 내가 즐길 수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축제가 아닙니다. 인문도시주간은 인문도시로 가기 위한 축제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 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 그래서 문화적인 삶이 가능한 도시, 소비로 유지되는 삶과 도시가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도시, 인문도시주일을 통해 그런 것을 말하고 싶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인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인문도시주간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요.

김성연 새로운 일상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란 살면서 자신이 주력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내려놓고 즐기고 싶은 자리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행궁동 곳곳에서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확대하고 존중해야 하는 그런 삶의 방향들을 인문학자에게 듣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일상을 만나고 또 주고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문도시주간은 인문도시로 가기 위한 축제이자 시민을 만나는 삶의 향연

킨메이타 이번 행사에서 수원시 거주 이주민들의 토크쇼를 통해 저마다 가진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이 참석해서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준비했는데 어련뿐 아니라 아이들도 수원시 축제를 함께 즐기는 주제로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명신 인문클럽 '돌봄과 배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해온 돌봄과 배려가 진짜 맞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가면을 쓴 채 플래시몹 형태의 댄스를 즐기고, 시민도화지에 자유롭게 낙서나 그림도 그리고요. 관에서 하는 단발성 축제가 아니라 이번 인문도시주간은 '확실히 남다른 게 느껴져' 하는 그런 색다름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과 나라를 넘어선 범세계적인 사고와 넓은 시야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9일간의 시민축제, 인문도시주일을 즐길 수 있는 '알쓸신잡' 팀을 주신다면요.

이명신 인문도시주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집니다. 막연히 오는 것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의 진짜 관심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케줄을 확인하신 뒤 참여해보시면 훨씬 즐거우실 것 같아요.

킨메이타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향과 맛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미안마 사태를 비롯해 각각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누며 세계평화를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지역과 나라를 넘어선 범세계적인 사고와 넓은 시야를 갖고 와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성연 '연결의 안테나를 세우고, 연결의 더듬이를 펼쳐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혼자 살아오지 않았음을 다양한 곳에서 펼쳐지는 인문도시주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안테나로 또는 어떤 더듬이로 연결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한문희 책방과 함께하는 인문도시주간에는 수원의 18개 책방에서 블라인드북을 판매합니다. 동네서점들은 공간이 작아 책 선정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책방 주인의 관심사나 성향이 반영됩니다. 동네서점에 방문해 주인의장과 설명글만으로 책을 구입해보는 모형을 시도해보세요. 인문도시주간의 예코백과 기념품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이 될 문화도시 수원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문희 우리는 12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에서 많은 단절을 겪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인문도시주일을 통해 시민들께서 도시 일부분으로서 개인이 아닌, 내 삶 전체를 관찰하고 관조하며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생공락' 축제가 많은 분께서 관심을 두시고 함께 나와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문도시주간 즐기기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민주주의 향한 9일간의 시민 축제

사람중심의 인문도시를 지향해온 수원특례시.

시민의 문화적 관점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는 문화도시 수원에서

시민이 함께 구성하는 삶의 축제인 '인문도시주간'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수원화성 원도심 외에도 복수원 생활권 중심거점인 복합문화공간 111CM

그리고 동행공간 58곳과 지역 18개 동네책방 등

시민축제를 수원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함께 살아가며 삶의 기쁨을 나누는 공생공락(共生共樂), 현대와 우정의 만남,

시민이 시민을 초대하는 인문도시주간을 즐겨보자.



QR코드를 스캔하면 인문도시주간 프로그램 가이드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질문하는 도시

동시대 수원 시민들이 지향하는 인문적 가치에 대해 전문가 담론작업과 인문클럽 실천실험을 공유하는 '질문하는 도시'는 도시는 무엇으로 특별해지고, 무엇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꿈꾸는지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먼저 '조금 다른 도시는 가능한가?' 인문도시포럼은 자전거·도서관·시(詩)를 중심으로 도시의 맥락(context)과 영향력을 살펴본다. '기후와 마음의 기후포럼'은 기후위기로 마음이 지쳐가고 삶의 터전에서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희망의 온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듣는다. 이외에도 '질문은 당연하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뭉살 가면무도회: () 위로를 담다', '우리의 먹거리를 알아야 지구를 지킨다', '뽕x 펀FUN!한 가을 운동회' 등 지난 6월부터 준비해 온 시민 인문클럽 실천실험인 '5색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둘, 문화로운 도시

올해 인문도시주간의 주제인 '모든 것은 노래한다'를 담은 예술-인문학-시민민주주의 기획연계 시민주도 기획사업 프로그램인 '문화로운 도시'다. '시민은 모두 시인이다' 창작시 공모에 당선된 수상자와 수원시민들이 함께 시 낭송 및 작은 공연을 즐기는 '문화도시의 밤', 지역 예술가·문화기획자 그리고 시민들의 평등한 대화 테이블인 '월간문화포럼', 수원 시내 작은 책방 18곳이 손을 잡고 북토크 등을 진행하는 '9일간의 책 여행', 돌보는 마음, 사랑하고 애뜻한 마음 등 우리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깨우는 '영화로운 시네마', 문화도시 수원 그리고 인문도시주간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인문실천 아카이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된다.

셋, 접속하는 도시

시민, 마을, 지역, 생태가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문화도시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공간-활동이 만나고 접속한다. '수원은 학교', '시민주도 R&D', '문화도시 동행공간', '웰컴 투 수원', '찾아가는 문화마중', '미디어로 만나는 문화도시, 미디어 차차', '로컬문화콘텐츠 직거래 장터 <수문장>', '생활문화 네트워크', '인문도시 아카이브', '슬기로운 공유문화', '시민협의체 수원 나우어스(SUWON NOWUS)', '2022 수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멈추면 생동>' 등이 함께 펼쳐진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인문도시주간 in 개더타운' 접속을 통해 나만의 아바타로 메타버스 공간을 탐험하며 2022년 문화도시 수원의 다양한 사업들을 살펴볼 수 있다. 시민주도 R&D 활동 공유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개더타운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개더타운 내에서 진행되는 자체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서두르자. 단절된 삶의 감각을 깨우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축제, 인문도시주간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이니까.

111 ComMunity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95



인문도시주간 어디부터 가볼까

⑥ 복합문화공간 111cm

- 인문도시포럼 10.15(토)
- 기후포럼 10.16(일)
- 문화도시의 밤 10.15(토)
- 책 놀이터 10.15(토)-22(토)
- 월간문화포럼 10.23(일)
- 북토크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할 사람> 10.18(화)
- 각별한 당신: 자기답게 살아온 사람들 10.20(목)

문화도시센터

- 인문실천 아카이브 전시 10.15(토)-23(일)
- 수원은 학교 포럼 2부 10.21(금)
- 시민가치 연합공유회: 우리서로 문화공간 10.17(월)
- 시민주도 R&D 성과공유회 10.19(수)
- 웰컴 투 수원 활동 공유 워크숍 10.20(목)
- 수원의 안부 결과 공유회 10.17(월)
- 콘텐츠 마켓 <수문장> 10.15(토)-16(일)
- 기관·단체협의체 실무자 워크숍 10.19(수)
- 슬기로운 공유문화 포럼 10.17(월)
- 오픈라디오로 만나는 문화도시 수원 <미디어 차차> 10.22(토)

인문클럽

- 5색프로젝트 10.20(목)-23(일)

④ 행궁동

- 시민 + 광장 10.22(토)
- 안녕, 행궁동 10.22(토)
- with you with me 10.22(토) ④

1개의 실험그늘

문화도시센터

- 시민활동공동체 오픈런 Open-Learn 10.22(토)
- 아트페어 10.20(목)-23(일) ⑩



문화도시 수원

2022 인문도시주간

10.15 (토) - 10.23 (일)

수원 곳곳

- 동네책방 블라인드 북 10.15(토)-23(일) 동네책방 페이지 참조
- 영화로운 시네마 10.17(월)-20(목) ⑨
- 청춘예찬 화곡 10.22(토) ⑭
- 청춘예찬 음악 10.21(금) ⑪
- gaga77page가 쓰고 있는 5년 동안의 페이지들 10.22(토) ②
- <나의 포근한 아현동> 박지현 작가와의 만남 10.16(일) ⑦
- 문수 좋은 날 (공연) 10.19(수) ⑰
- 멈추면 생동 결산전시 10.22(토)-11.13(일) ⑮
- 문화도시에서의 지역예술인의 역할 10.18(화) ⑧
- 예술가가 바라본 법정문화도시 수원 10.21(금) ⑬
- 가족공예로 사이시옷 하자 10.18(화) ⑤
- 지구에 무해한 하루 10.19(수) ⑫
- 시민협의체 시민리더 정기회의 10.21(금) ①

1개의 실험그늘

문화도시센터

로봇 휴머노이드가 아닌 인간인 나는 아싸비야가 있는 도시에 살고 싶다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힘, 아싸비야
 인간은 홀로 살지 않는다. 호모 사피엔스가 현재의 문명상태 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적으로 '함께함'에서 솟아난 역량 덕택이다. 도시는 함께함이 구체화된 공간이자 함께함의 다채로움을 펼쳐 보이는 무대이다. 가장 오래된 함께함의 역량은 기원전 9천 년 전의 도시 괴베클리 테페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괴베클리 테페 유적지에서 야생동물과 사람을 표현한 각종 조각상과 다량의 T자형 기둥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 기둥 하나를 옮기려던 최소 500명 정도의 인력이 동시에 투입돼야 가능하다고 학자들은 추정하나 괴베클리 테페는 그 자체가 함께함의 전시장인 셈이다. 괴베클리 테페는 도시의 본질에 대한 가장 단순명료한, 그렇기에 오히려 가장 적절한 생각거리를 품고 있다. 도시는 공학적 테크놀로지만 있으면 형성되는 인공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퇴적돼 빚어진 공간이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기원전 4천 년경에 우루크라는 도시가 출현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강수량은 적고 땅은 메마르고 평평하다.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물을 이용해야만 농업이라는 잠재력은 현실이 될 수 있다. 농사를 지으려면 관개사업은 필수적이다. 관개사업은 괴베클리 테페보다 더 강력한 함께함을 요구한다. 그들은 해냈다. 우루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기술적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은 기원전 9천 년 전에 그리고 4천 년 전에 도시를 만들어냈다. 두 도시는 서로 닮았다. 도시의 중앙에 공통적으로 신전이 있다. 신전은 누구의 것이 아니다. 신전은 모두의 것이다. 누구의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모두에게 속한 공통적인 공간, 그 공통적인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도시는 낮은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출현했고, 그 합의가 무너지면 도시는 사라졌다. 어떤 도시도 영원하지 못한다. 지중해 마그렙 지역의 여러 왕조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이븐 칼둔은 결국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현상인 '아싸비야'가 흥망성쇠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라 생각했다. 아싸비야는 생산력과 기술의 발달, 즉 공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힘이다. 아싸비야가 없는 도시는 소멸하고, 아싸비야가 있는 도시는 흥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안녕이 궁금하면 도시에게 물어야 한다. 나의 도시에는 아싸비야가 있는지.

우리가 꿈꾸는 도시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다르다. 부유한 사람은 물질적 풍족함을 즐기고, 풍요로운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다는 만족감을 즐긴다. 풍족한 재물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주거복지가 모든 이에게 풍족한 주거 환경 제공이라는 목표를 지향하지만 풍요로운 삶은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상상에 의해 채워지고 충족될 수 있다. 풍족함은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과 그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택과 기회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만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 존엄에 걸 맞는 삶을 보장하는 환경으로서의 도시와 풍족함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는 다르다. 별도로 논의해야 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담론은 지독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도시공학적 유토피아 '부동산 대박 신화'라는 신기루의 담론은 소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질문과 그 질문에 공동의 답을 내리는 시도는 도시의 시공장에 처박혀 있다. 도시공학자는 도시를 짓는다. 하지만 우리는 도시에 거주한다. 부동산업자는 도시를 개발하고 판매한다. 하지만 도시 내에서 우리가 형성한 사회적 관계 자본은 자본의 투여에 의해 개발될 수도, 상거래를 통해 판매될 수도 없다. 도시 내 상업시설이 확충되고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는 인프라 구축은 삶의 질이라는 지표로 표현될 수 있지만, 삶의 질은 부유함의 측정에 가까울 뿐 풍요로움을 표현하지 못한다. 부유하지만 사회적 관계의 질이 높지 않다면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풍요로운 도시는 그 도시 내 사회적 관계의 질(social quality)의 향상에 의해 일구질 수 있다. 도시공학적으론 평가하면 아랍에미리트의 도시 두바이는 기적의 도시이다. 사막 한복판에 있던 도시에는 꽃이 만발해

있고, 중심상업지역엔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분수 쇼가 벌어지는 대형 인공호수가 있다. 두바이에선 도시설계의 앞선 테크놀로지를 느낄 수 있지만, 오로지 일시적으로 그곳을 찾은 관광객으로만 채워진 두바이의 도심에선 어떤 형태의 사회적 관계의 질도 느껴지지 않는다. 두바이는 풍족한 도시이지만 그래서 풍요롭다고 할 수 없다. 사회의 질은 사람이 자기의 행복과 개인적인 잠재력을 키우면서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풍족한 도시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관계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빈곤의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그저 인프라가 확충된 도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빈곤에서 벗어난 도시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사회적 관계의 질은 단숨에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의 질은 공학적으로 공급가능한 도시의 인프라처럼 기계적으로 달성되지도 않는다. 적어도 경험으로 우리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을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있다. 첫째, 풍족함이라는 폐쇄적인 회로 내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한 사회적 관계의 질은 향상될 수 없다. 사회적 관계의 질이 도시 내에서 개선되기 위해서는 풍요를 향한 오솔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 풍족의 회로에서 맴도는 사람에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는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풍요의 길을 향해 떠나는 사람에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고, 게다가 걸어갈 수 있는 골목길에 서점이 있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제대로 사는 법에 대해 얘기할 친구가 있는 도시다.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스마트한 도시에 산들, 관계가 스마트하지 않다면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 아싸비야가 없는 스마트 도시에 최적화된 거주민은 인간을 닮았지만 결국 로봇에 불과한 휴머노이드(humanoid)이다. 인간인 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싶지 않다. 살고 싶은 도시를 상상하는 친구는 그래서 필요하다.



서장대에 올라 미래를 꿈꿨던 정조대왕의 비전을 느끼다

조문경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문화체육교육위원회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참여해야 하는지 주민의 언어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얘기할 매개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장대
 서장대(西將臺)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정상에 있는 조선시대 장대다. 장대(將臺)란 성곽 일대를 한눈에 바라보며 화성에 주둔했던 장영의영 군사들을 지휘하던 지휘소다. 화성에는 서장대와 동장대 두 곳이 있다.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있으며 '화성장대(華城將臺)'란 편액은 정조가 친히 쓴 것이다. 1794년(정조 18) 8월 11일 공사를 시작해 9월 29일 완성됐다.

먼저 의원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자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원시 문화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전북 김제 출신이신데요. 수원과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19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생계를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와중에 수원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를 만나며 수원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게 맺은 인연으로 2001년 사업장을 정자동에 차리게 됐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이후 수원시 향군협의회,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지역봉사를 시작하게 됐고,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12월 제3차 법정부안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시는 시민과 함께 문화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성되는 문화시설, 지역 인프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가 아닌 수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정책은 시민 전반에 확산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시의 많은 문화 정책에 대해 주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의도하는 정책 취치가 일반 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역시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참여해야 하는지 아직 일반 주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언어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얘기할 매개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모든 것은 분명 어딘가에서 일어났고, 일어나며,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골목 귀퉁이를 돌면 반가운 사람을 만날 것 같은 추억의 장소는 으레 사람 속 먼지 얇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냅니다. 의원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추억의 장소는 어디인지요. 내가 있는 곳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줄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이 누적된 장소는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1794년 건설했던 서장대에 오르면 어려운 여건에서 미래를 꿈꿨던 정조대왕의 기상과 비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의원을 시작했지만 여러 난제와 불합리한 상황에 부딪혀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서장대에 올라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미래를 꿈꾼 정조대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정조 사후 222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수원화성을 바라보며 궁정의 힘과 강인한 의지를 받고 합니다.

수원시민에게 드리는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수원은 계속해서 택지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거에 택지개발이 이뤄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낙후된 인프라를 경험하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정비된 광고호수공원에 비해 서호천, 영화천은 여러 시설물이 낙후돼 지난 호수로 많은 시설물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격차는 다시 문화 소프트웨어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호천, 영화천 수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 주민들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서로를 살피고 소통하며, 함께 문제에 맞서면 더 나은 수원을 만드는 일이 요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까운 미래, 의원님이 계획하신 청사진에 대한 말씀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시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에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 수원공공예술

예술감독 박찬규 | 진행 장다현 원민주 김예령 | 후원

문의 info@swpublicart.com

2022 수원공공예술 프로젝트

〈멈추면 생동〉은 '수원 비행장'으로 불리는 '제10 전투비행단'의 이전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군 비행장은 서수원 지역의 현재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부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흥미로운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개발과 재생/공유에 대한 관점을 재고하고 다른 의견을 생성하여 도시 곳곳의 비었던 곳, 빈 곳, 빌 곳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공간과 개념, 방식을 구분짓는 3개의 사이트 - ON/CLOUD/WITH site - 로 운영이 되며 예술가-연구자-기술자-전문가-활동가 등 각계 각계의 도시생활자들이 모여 조사와 연구-활동 및 교류 기록과 표현, 발신을 기반으로 한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멈추면 생동〉은 수원 탐동시민농장 실험목장 AGIT를 거점으로 진행됩니다.

수원 탐동시민농장 실험목장 AGIT를 거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멈추면 생동〉 프로젝트에는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문화체육관광부

독자의견

강미숙 장안구 장안로 수원의 특징을 잘 알려주는 <월간 문화도시 수원>을 정말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평소에 매일 걸으며 운동하는 팔달산 일대와 행리단길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원도심 흐름+로컬브랜드를 소개하는 코너가 정말 좋았어요. 그림체가 예쁜 지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처 몰랐던 로컬브랜드들도 쉽게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행궁동과 팔달산 주변의 작은 상점들과 골목길의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월간 문화도시 수원을 보신 소감, 응원의 메시지를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는 월간 문화도시 수원에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monthlswcc@gmail.com
내용 독자후기 한마디, 성함, 사시는 곳(00구 00동), 휴대폰 번호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월간 문화도시 수원 발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